

노년은 내게도 온다

먼동이 터오기도 전 새벽녘에 눈을 뜬 노인 염 씨는 TV 리모콘을 만지작거린다. 유일하게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얼 TV에서 나오는 한국소식을 보고 싶지만, 아직 단잠에서 깨지 않은 아들 부부에게 방해가 될까 봐 망설이고 있다. 나이가 80을 넘어서부터는 그의 귀는 점점 잘 들리지 않아서 TV 볼륨을 크게 올려야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새벽 6시 반에 TV를 켜니 핀치 역 인근 인도로 돌진한 차량으로 졸지에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스크린을 장식하고 있다. 안타깝게 죽은 사람 중에는 염 노인처럼 나이가 꽤 든 중동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껴야 할 염 노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사고로 목숨을 잃고 못 사람의 추모를 받고 있는 노인 희생자가 부러운 느낌마저 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아무리 미화를 한다고 해도 서글픈 인간의 실상이다. 누가 말했던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그렇다 인생은 무한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한 점 먼지와 같은 짧은 순간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토록 짧고 덧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인간은 오늘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건강할 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전심을 다 해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일까.

누구나 먹는 나이. 30대까지만 해도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노인학대에 관해

친구들 만나느라 정신없이 산 염 노인은 시간이 빠르다는 의식을 할 틈도 없었다. 그런데 40대를 넘기면서부터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데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시작했다. 마치 가속페달을 밟은 자동차처럼 시간은 가혹하리만치 빠른 속도로 노년의 삶을 지나는 사람들 곁에서 멀어져만 간다.

얼마 전 염 노인은 기침이 계속하다가 급기야 폐렴으로 진전되어 병원 응급실 신세를 져야만 했다.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들어가니 의사들은 그의 가족들에게 염 노인이 얼마 살 것 같지 않으니 준비하라는 식의 말을 했다. TV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병원 응급실에서는 혼수상태에서도 그런 말은 왜 그리도 잘 들리는지... 심장이 멎으면 전기충격 요법을 사용할 것인지, 호흡이 멈추면 입을 통해 폐부 깊숙이 관을 집어놓고 인공호흡을 시킬 것인지 결정하라고 의사들은 염 노인의 가족들에게 다그치고 있다. 아! 이제 정말 죽나 보다. 가족들이 회의 끝에 어차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기충격 요법이나 튜브 인공호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가족들이 써주고 난 뒤에 염 노인은 중환자실에 배치되었다.

이제 정말 가야 궁나?

의사와 가족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염 노인은 이제 더이상 살 가능성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젠 죽을 사람이라고 단정을 했는지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놔주는 링거액 말고는 염 노인의 소생을 위해 해주는 특별한 처치는 없었다. 옆 방에도 노환으로 입원한 외국 노인들이 여럿 있었다. 그나마 염 노인은 아들딸과 사위가 번갈아 가며 병상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가래를 빼 달라” 등의 요구를 여러 번 하면 간호사들이 와서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삶과 죽음은 하늘의 섭리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글 조성진

아무도 세상에 오는 때와 세상을 떠나는 때를 스스로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약함과 외로움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해야 할 현실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점차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도 노익장을 과시하는 정도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황금기의 노년을 보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환상적인 노년을 보낼 형편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늙어가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노년 세대는 점점 생활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사회적인 활동과 인간관계가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에 있다.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에서 위로해줄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노년 세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는 물론 사회와 국가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내놓아야 할 과제다. 오죽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사회복지 국가 영국에서 최근에 고독부 장관 (minister of loneliness)를 임명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외로움은 음주나 흡연보다 위험한 질병이며, 매일 담배 15 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그랬을까. 외로움은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문제는 노년 세대가 갖는 외로움을 치유하기 이전에 노인에 대해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다. 꼭 무슨 육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만 학대가 아니다. 노인학대는 유무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부모를 봉양한답시고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어둡고 침침한 방구석에 틀어박히게 한다거나, 노인이 무슨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존재나 되는 것처럼 방치하는 일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우 흔한 노인학대 중의 하나다. 노인 냄새 난다고 같은 밥상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더 정도가 심한 노인학대이며, 어린 손주 손녀가 외할아버지 집안을 드나들 때 도대체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없는 사람 취급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 한 번 나누지 않는 모습에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이제는 범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로원을 포함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자행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두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전화 상담교육센타 주최

전문가들과 함께 노년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토크쇼!

늙어간다는 이야기 마당

질병과 외로움은 밀려오고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가는데,
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



우리주변의 노인문제는
당신과 당신가족의 문제입니다.

왜 노년문제 토크쇼를 하죠?

노년 문제 토크쇼 개최목적

- 노인문제 (특히 노인학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노인학대 방지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부족 문제 파악
- 노년에 걸친 여러 가지 장벽에 대한 인식 교육
- 인생 후반전의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라이프 설계

행복한 노년을 원하십다면 참여하세요!

그럼, 토크쇼는 언제 하죠?

참석인원이 제한된
토크쇼에

참여를 원하시면,
서둘러 연락주세요.

If you are interested in attending
Talk Show Day, Please let us know

Phone 416-447-3535

e-mail admin@futfs.org

1회 토크쇼 기술 발전과 대화 단절 (Elder Issues)
2018년 8월 11일 (토) 영락교회

2회 토크쇼 돌봄과 균형잡힌 삶의 방향 (Care Giving)
2018년 10월 20일 (토) 노스욕 시청 Chamber

3회 토크쇼 고립화와 갈등 해결 (Elder Abuse)
2019년 1월 26일 (토) Fairview library theatre

쇼케이스 (Showcase)
2019년 3월 23일 (토) 한인회관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캐나다 한인사회 노인문제 해결과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관련 전문강사와 도우미를 모집하오니

416-447-35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라옹기는 늙어감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육체와 정신이 연약해지면서 갖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 아는 만큼 노년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름다운 노년을 위한 이야기 마당>에

많은 분의 지혜와 함께함을 기대합니다.



Government
of Canada



For You Telecare Family Service